



광주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복지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50년 넘게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온 광주보건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무 완성형 교육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생성형 AI와 에듀테크를 결합한 5대 교수법으로 교육 혁신을 선도한다.



광주보건대 '보건·의료·복지' 새 이정표 세운다

대학은 혁신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3개 영역 S등급, 2개 영역 A등급을 받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어 '글로벌 30 대학 프로젝트' 1차년도 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해 국내·외에서 국제적 보건·의료·복지 인재를 양성하는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이번 평가에서 대학이 보여준 전략적 접근은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교육의 질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결과로 풀이됐다.

박용순 산학협력단장은 20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체계화됐다"며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량 기반 교육과정 재설계를 통해 졸업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완성형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취업률 1위'...현장 중심 교육

광주보건대는 2024년도 호남·제주권역 졸업생 1천명 이상 대학 기준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현장 중심 직무 교육의 결실이다.

우선, CROSS 5대 핵심역량(창의적 협업·관계소통·조직 적응·사회적 감수성·전문적 통찰)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현장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했다.

또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직무 분석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수 술기 및 임상 시나리오 실습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취업 연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은 광주보건대학교 졸업생들이 산업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AI·에듀테크 결합 5대 교수법 도입

글로벌 30 1차년도 평가 'A등급'

졸업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육성

'취업률 1위' 명성 현장 중심 교육



위에서부터 김경태 총장이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플로깅, 지역사회 건강 케어 프로그램 모습. <광주보건대학교 제공>

◇'티칭인중재·마이크로티칭' 도입

광주보건대는 교수의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티칭인중재'와 '마이크로티칭' 제도를 도입했다. '티칭인중재'는 강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인증·관리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마이크로티칭'은 교수자의 실제 강의 장면을 촬영해 전문가 분석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의평가 하위 10% 교원을 대상으로 'Teaching Growth 코칭'을 운영하며 개별 코칭을 통해 강의 개선을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PBL·TBL·DBL·FL·BL 등 5대 교수법과 생성형 AI 기반 에듀테크 수업을 287개 교과목에 적용하고, 교수학습 콜로키움 15개 조직을 구성해 교수 간 협업 연구와 수업 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Teaching Frontier 세미나'를 통해 AI·디지털 교수법 역량을 강화하며 3년간 누적 130명 이상의 교원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러닝 포인트' 등으로 학습부진 제로화

광주보건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CROSS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신입생 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생리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학습태도 진단평가 실시하고, 학습부진 학생 150명을 집중 지원한다.

편입생·복학생을 위한 '러닝 포인트(Learning Point)' 프로그램은 학습 단절 경험자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12개 학과, 260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습전략 특강, 실습 워크숍, 멘토링 등을 통해 학업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 공동체 12개, 전공튜터링 150명, Give & Take 학습공동체 20명 등 총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CTL 프렌즈' 20명을 선발해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담당하고, 산학연계 전공동아리 20개가 산업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단평가 향상률 32%, 학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84점, 중도탈락 위험군 유지율 6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보건계열 산학협력 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계열 특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가족회사 제도를 산업체 부서 단위로 세분화한 '마이크로 가족회사' 시스템을 도입해 학과·기업부서 간 1대1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리빙랩 방법론을 적용한 '커뮤니티케어 융합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 참여형 문제해결 교육을 실현했다.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 애로기술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보건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광주에서 학습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보건·의료·복지 교육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건강서포터즈 150명' 양성

광주보건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선도 대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친화적 캠퍼스 조성에 힘쓰고 있다.

대학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환경 보호 활동을 확산시켰다.

교직원·학생·지역주민에게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500부를 배포하고 정기 캠페인을 통해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을 지속 도입해 에너지 절감·탄소저감형 캠퍼스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직종 연계교육(IPE) 혁신

광주보건대는 WHO 권장 교육 프로그램인 다직종 연계교육(IPE)을 도입해 보건·의료 현장에 서 협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IPE는 다양한 직종이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 방식으로, 대학은 비정규·정규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제 협업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다직종연계실천교육네트워크(KIPEN)를 설립해 전국 대학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국내 IPE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정책과 보건·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보건·복지 허브로 도약

광주보건대는 김경태 총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 혁신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잡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복지 인재 양성 기관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태 총장은 "광주보건대학교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건·의료·복지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30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 어디서나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광주보건대학교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